



혼술·혼밥·혼자 살기 TV, 1인가구 전성시대

조용한 식사·혼술남녀 등 1인 가구 조명 프로그램 잇따라 등장
동병상련·위안 얻고 타인의 삶 엿보는 재미... 시청자에 인기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명으로 구성된 '나 홀로 가구'가 국내에서 가장 흔한 가구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인 셈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3000 가구로, 전체(1911만1000 가구)의 27.2%를 차지하며 2010년 23.9%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TV가 잇따라 1인 가구를 조명한 프로그램이 내놓고 있다.

◇ TV, 1인 가구를 조준하다
2013년 시작해 여전히 순항 중인 MBC TV '나 혼자 산다'를 필두로,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에 주목하는 프로그램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스타가 혼자서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는 올'리브' '조용한 식사'가 등장 하더니, 혼자서 술을 즐기는 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최근 시작했다. 오는 20일에는 스타를 온라인으로 초대해, '혼밥'을 주제로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원격 토크 형식으로 선보이는 올'리브' '8시에 만나'가 선보인다. '떡방'은 인터넷TV에서 출발했다. 여러 인터넷 TV에서 혼자 맛있게 된가를 먹는 방송들이 히트를 치면서 케이블과 지상파 TV에도 '혼밥'과 '혼술'을 주제로 한 예능과 드라마가 상륙한 것이다. 파일럿을 거쳐 최근 정규 편성된 SBS TV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는 '나 혼자 산다'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변주다. 혼자 사는 장성한 남성 스타의 생활을 조명하면서 관찰자로서의 감정을 내세웠다. 또 지난날 18일 시작한 tvN '내 귀에 캔디'는 혼자 사는 스타의 외로움을 쓰담스담. 익명의 상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스타가 자신의 심경과

외로움을 토로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TV 보며 동병상련... 타인의 삶 엿보는 재미도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했다고 혼자 사는 사람만 이들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다. 실제 혼자 사는 사람은 TV를 보며 동병상련이나 위안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삶을 엿보는 재미를 얻는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46세의 싱글 직장여성 민정연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사는 게 나만이 아님을 TV를 통해 확인하며 위안을 얻는다"고 토로했다. 39세의 기혼남성 이성진 씨는 "나는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 살지 않지만,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재미있다"면서 "남들은 저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엿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 "혼자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들을 타깃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광복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9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혼자 살아야 하는 고령층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결혼을 늦추거나 회피하며 혼자 사는 젊은층도 많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또 결혼을 해서도 부부가 같이 있지 않고 여러 상황상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광 교수는 "혼자 사는 시청자는 1인 가구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 상황, 내 처지 같이 느낄 것"이라며 "혼자 사는 게 굉장한 힘을 주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그걸 객관화시켜서 멋지게 보이게 하거나 삶의 틈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개봉 5일 만에 200만명 '광해'보다 빠른 흥행 질주

영화 '밀정'이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불러모으며 흥행 질주에 나섰다. 11일 이 영화의 제작·투자사인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에 따르면 '밀정'은 개봉 5일 만인 이날 하루 동안 관객 100만 명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흥행 속도는 역대 추석 흥행 대작 '광해, 왕이 된 남자', '사도'보다 각각 3일과 2일 빠르게 '관상'과 동일하다. 아울러 역대 천만 영화 '변호인'과 '국제시장'보다 빠른 기록이다.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측은 '밀정'이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이며 일일 관객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추석 연휴에 더욱 강력한 흥행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추석특선 앙코르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스쿨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발상의 전설 55 별별가족	00 TV스쿨 <저 하늘에 태양이>(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2016 리우 패럴림픽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2016 리우 패럴림픽 <수영>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독! 키즈스쿨 55 깨달음시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수상현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꽃놀이패
12	20 역사저널 그날(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 <그리워라 어머니 밤상 1부 정년 민어를 만나다> 06:20 세계테마기행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맹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팝! 스페이스 정글 09:40 아버지의 귀환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윤숙자의 막걸리 식초와 닭가슴살 채소구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2:40 지식재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시계마을 티키펍!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아웅령령 귀여워 15:35 요술 상자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맹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보로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드기행 1부, 19세기로의 기차여행> 21:30 한국기행 <달 따라 가세 1부 휘영청 삶에 밝았네> 21:50 EBS 다크 프라이밍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1부 맹세했던 은행나무의 고백>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2일 (음 8월 12일 丁酉)

<p>子</p> <p>48년생 변화무쌍한 가운데 희망의 조짐이 나타난다. 60년생 지리멸렬해왔던 일들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72년생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예견할 수 있으리라. 84년생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2, 82</p>	<p>午</p> <p>42년생 가시 없는 장미는 없느니라. 54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66년생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다. 78년생 정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9, 38</p>
<p>丑</p> <p>49년생 자기당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61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73년생 양호한 성과를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85년생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58, 01</p>	<p>未</p> <p>43년생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미치는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55년생 마지않아 전면목이 드러날 것이니라. 67년생 기초가 부실하다면 극한 환경에 이른다. 79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3, 59</p>
<p>寅</p> <p>50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맞춰서 행해야 할 중재대담이 있다. 62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재물이 생길 수 있나. 74년생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길사가 기다리고 있다. 86년생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64</p>	<p>申</p> <p>44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56년생 면밀한 검토 후의 판단이 손실을 줄이게 할 것이다. 68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80년생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해야 할 국세라 할만하다. 행운의 숫자 : 27, 12</p>
<p>卯</p> <p>51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63년생 기본적인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7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7년생 지난해 쌓아 놓은 실적이 의해서 박수받을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9, 40</p>	<p>酉</p> <p>45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겠다. 57년생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69년생 미봉책은 두 번 일을 하게 한다. 81년생 상국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49, 73</p>
<p>辰</p> <p>40년생 확실히 이르면 곤란하다. 52년생 재물이 생기는 기쁨이 있다. 64년생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다. 76년생 초기 상황에서 거의 승부가 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88년생 기대했던 바에 외의 걸림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0, 32</p>	<p>戌</p> <p>46년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58년생 숨어 있는 바를 찾게 되는 희한함이 보인다. 70년생 이면의 가치까지 감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82년생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8, 52</p>
<p>巳</p> <p>41년생 적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65년생 종합적인 진단이 관건이다. 77년생 개선한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게 된다. 89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은 별로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17</p>	<p>亥</p> <p>47년생 침착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흉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59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 땅 차이다. 71년생 말하고 싶어도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83년생 생 모나지 않고 동글게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16, 4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